

“지구촌 잔치에 불교정신 심자”

‘문화월드컵 이렇게 열자’ 특별정담

최근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계기로 문화복지적 수준의 격상과 함께 ‘문화월드컵’을 개최해 문화대국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김영수)도 지난날 27일, 28일 서울 올림픽야호텔에서 ‘2002년 문화월드컵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주제로 다도토회를 가졌다. 문화월드컵이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지구촌에 선보이는 것. 그렇다면 가장 한국적인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지는 불교문화가 민족문화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전통을 잇는 ‘살아있는 정신’이란 인식 아래, 문화월드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불교 문화계 원로 3인에게 듣는 특별정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고은=한국이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에는 개최지가 확정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문화월드컵이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니 하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바탕이 불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지구촌에 우리 불교문화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홍윤식=불교를 통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석굴암의 아름다움이나 박물관·유적지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를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이를 확대해 불교적인 생활을 일상화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지요.

▲김용운=월드컵의 현장인 서울과 지방도시에 다양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울 견지동과 인사동에 불교적인 향취가, 명문동에 유교적인 풍취 등이 남아 있지만 도시계획이 경제논리에 따라 기능적으로 짜여지다 보니 전통문화가 제대로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도 전면일괄적인 도시계획을 벗어나 전통의 멋을 보여주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

▲홍윤식=조선시대에는 유교중심의 사회였다 보니 도심 밖에 절이 세워졌지만 신라시대에는 도시 한가운데 절과 능(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불교문화의 역사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새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고은=88 올림픽 전야제와 폐막식은 화려한 문화 이벤트로 국민적인 공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기억과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도 바람만 불고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통문화는 우리의 삶과 사상과 정신을 담은 결정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월드컵은 우리나라의 문화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용운=서울올림픽 마스게임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타디움 밖 시내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축제가 동시에 진행됐더라면 하는 것이죠. 68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경

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잘 치뤄진 적이 있습니다.

▲고은=2002년 월드컵은 공동개최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발전 가능성도 있지만 갈등이 심해질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일문화의 적나라한 대비를 통해 두 나라 불교문화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서구문화를 융화하는 재생산과정을 겪었으나 우리는 아직 서구문화의 모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의 우수한 지방문화와 비교될 때 어떻게 평가될 지 의문입니다.

▲홍윤식=일본의 불교문화와 비교할 때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불교는 전통불교의 재해석과 영역사명을 대대적으로 벌여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미 일본불교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통해 일본을 바라보게

▲고은=문화월드컵에 불교문화를 이용해 달라고 정부에게만 요청할 것이 아닙니다. 종단적으로 포교의 사명감을 갖고 한국 불교문화를 알려 세계인들이 보고 귀하게게끔 해야 합니다. 또 탐돌이 장대 불사 범패 이산 등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비록 정신적인 것이지만 실제화 하고 널리 홍보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불교는 민족혼 결정체

▲홍윤식=지금 조계종 총무원과 동국대가 남산 영산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현존도의 뜻을 담고 있는 영산재를 전통문화대전으로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단합 주위로 9월 한·중·일 삼국 불교대회 회장과 우란분재에 맞춰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영산재에 전 종도가 뜻을 모으려면 모범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같은 행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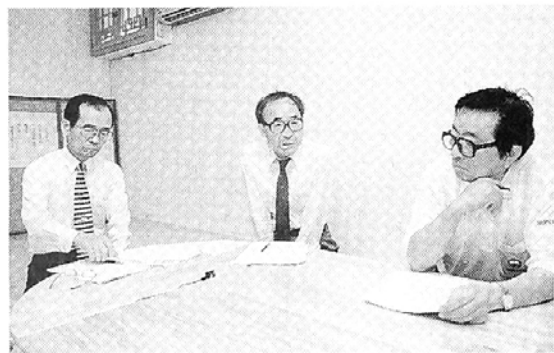
고은 <시인·본지 논설교문>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일시: 1996. 7. 1 오후 2시 30분

장소: 본사 회의실



▲고은=유럽의 축구가 유럽공동체를 탄생시켰듯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를 계기로 중국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한자문화권과 해양문화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월드컵이 되었으면 합니다.

와 보물을 세계에 자랑할 길이 없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김용운=일본의 국보인 광릉사 반가사유상의 보관 및 장엄, 연출 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첨단 시설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진행되는 거국적인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회 구성시 적절하게 문화인들을 배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고은=월드컵은 지방에서도 동시에 열립니다. 지역사찰이 종단 지원아래 각 도시 선수촌에 불교문화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김용운=탐돌이 등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끔 해 지역사찰에서 불교의식과 놀이를 결합하는 문화행사로 육성했으면 합니다. 탐돌이는 신라때부터 전해 내려 온 불교 교유의 낭만적인 문화전통의 하나입니다.

동방예의지국 회복

▲고은=해인사 정대불사나 불국사 탐돌이 행사 때 대형 스크린을 설치,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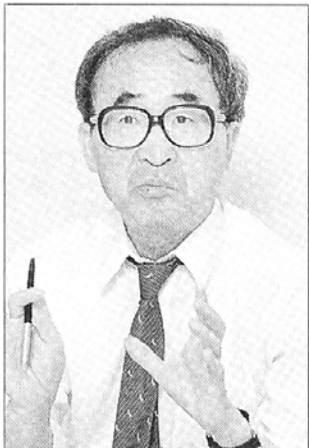
▲홍윤식=탐돌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도록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탐돌이가 전송되고 있지 않아 실패했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국가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은=우리 국민의 문화의식도 나아져야 합니다. 말로만 동방예의지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화시민의 의식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의 함양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하심과 부지런함 등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불교적인 미덕이 많다고 봅니다. 식당에서 물그릇, 젓가락 놓는 태도부터 바뀌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홍윤식=일본의 불교신도는 부처님 앞에서만 합장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합장을 합니다. 이같은 공경과 하심의 미덕을 외국인들에게 발휘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자제가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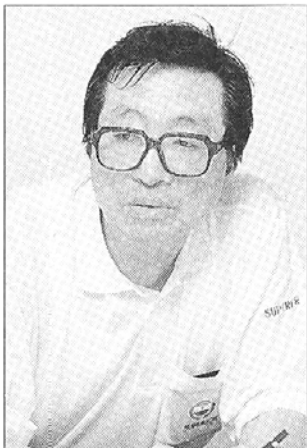
▲고은=그렇습니다. 불자들이 앞장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불자들은 2002년 문화월드컵을 불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긴시간 감사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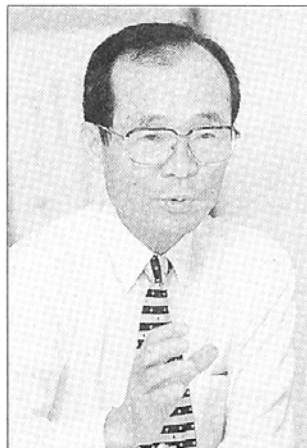
“한일공동 개최 계기 놓치지 않고 공동체 결성”

고은



“지역·시민 참여하고 거국적 문화행사를”

김용운



“공경·하심 미덕 발휘 국민문화의식 전환”

홍윤식

문화유산 홍보...탐돌이·범패 대중참여 축제로 반가상·범종소리등 다양한 기념품 개발 필요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교문화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 팔만대장경조차 세계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생활양식도 마찬가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불교의식 행사 등 무형적인 요소의 경우는 선종의 강제로 더욱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7백여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팔만대장경과 함께 해인사 신도들이 참여하는 정대불사의식이 남아 있듯, 유형문화재와 결하여 신행과 불거리를 함께 갖춘 무형적인 요소를 복원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들이 꾸준히 계속된다면 문화월드컵에 보탬이 될 것 입니다.

▲김용운=한·일 두 나라 불교문화가 차이가 큰 만큼 문체부가 한중일 삼국의 불교문화를 조명하는 원고를 모집, 이를 영문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음악회에 반야심경 독경을 삽입하는 등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시도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형적으로 더 불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적인 모습 보다는 특유의 정신적인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합니다.

▲홍윤식=내년 4월부터 동국대는 일본 용곡대와 ‘월드컵 공동개최와 불교’를 주제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월드컵을 위한 불교축의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것 입니다.

▲고은=우리나라는 새마을 사업으로 농촌의 전통가옥을 모두 없앴지만 일본 농촌은 고유한 건축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문화적 자부심이죠. 특히 2003년경에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완공 예정으로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필 월드컵이 열릴 때 중앙박물관이 없어 각종 국보

있습니다.

▲고은=현재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종교 등학교에 대생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미륵보살반가상을 보다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외국선수들과 임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장중한 범종의 소리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에 담아 보급하는 등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김용운=문화월드컵의 주체가 관공본도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친견법회

기간: 불기 2540년 7월 11일~30일(20일간)
장소: 조계사
전시: 부처님 진신사리, 수정사리병, 황금 불입상, 기타 장엄물 사진

이운의식

일시: 불기 2540년 7월 11일(목) 오전10시
장소: 덕수궁 문화재관리국
이운구간: 덕수궁 - 을지로입구 - 광고 - 보신각 - 조계사



같은사지 3층 석탑에서 수습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수정사리병



나원리 5층 석탑에서 수습된 황금 불입상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1300여년 만에 나투신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지난 3월 18일,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열다섯과, 그리고 4월 25일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열다섯과와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신앙의 상징물인 사리를 원래의 장소에 재봉안하기에 앞서 여러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모습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불자님께서는 1300여년 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고 더욱 믿음은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